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바이오진흥원-전북자치도, 참여기업 전년대비 매출 24%·고용 29% 증가 등 성과 창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2024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태용 청장,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정의봉 회장을 비롯해 전문가 및 참여기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 표창, 사업추진 경과보고, 우수기업 사례발표(유망·혁신기업) 순으로 진행됐다.

(주)반석산업은 2024년 도전 J-스타트업 창업컨테스트와 NS 푸드 페스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고, 해외수출 진출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 기업 성공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5월 '도전! J-스타트업 컨테스트'를 통한 우수 창업기업 20개사 선발을 시작으로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형 지원과 다양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 중 도내 창업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창업상담서비스 제공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기업에로혜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원기업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참여기업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액 24% 증가, 고용창출 29%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품 및 기업인증 4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43건, 투자유치 2개사 등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하는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진흥원이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와 예코융합심유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지원사업비와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더욱 고도화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창업기업들의 열정과 창업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창업생태계 일변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업 분야 기관, 단체, 학계, 기업 등 관계자 140여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산물 안정 생산·수급관리 톨 전환

aT, 농식품부 등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 분야 기관, 단체, 학계, 기업 등 관계자 140여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열렸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공청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4건으로, △원예작물 신 품종의 新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박정관 원예특작과학원 부장), △CA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손재용 농업과학원 과장)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이명훈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5곡(쌀·밀·콩·보리·옥수수) 중심 식량작물 육성방안(황재현 동국대학교 교수)이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지원 연계의 필요성(전병대 농어촌미래포럼 회장) △농산물 보관의 CA 저장기술 도입(허정행 농협경제지주 국장) △안전적 식재료 수급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필요성(이강원 삼성웰스토리 부사장) △카길 사례를 통한 식량작물 육성 및 자급률 제고 방안(이보근 순천대 석좌교수) 등 각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정책 방향(신우식 농식품부 과장) △생산지원·비축역량 제고·식량무기화 대응·통계농업 등 aT의 추진 계획(문인철 aT 수급이사)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 두루 공유됐다.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은 비단 농업계의 문제가 아닌 관련 산업, 국민 개개인의 삶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함에 입을 모았다.

/오만호기자

새만금개발청, '관광·MICE 허브' 구체적 청사진 제시

새만금개발청이 지난달 29일 새만금투자전시관(서울에서 '새만금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역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개발청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3대 허브(첨단제조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를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관광·MICE 허브는 관광레저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다.

MICE 산업은 Meeting(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미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라는 비전을 도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역별 핵심 개발 방향 인프라 및 콘텐츠 확보방안, 국제회의·기구 유치 전략, 연차별 종합계획 등을 제시했다.

먼저 관광레저용지를 3구역으로 나눠 베포즈 MICE, 콘텐츠즈를 각 콘셉트로 설정하고, 콘텐츠별 핵심시설, 부대시설 등 도입이 필요한 인프라를 선정했다.

국가·지자체·민간 주체별 역할, 인프라 추진 시기 및 방안, 인프라 콘셉트(안)를 제안해 정책 수립,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배출오염원 집중 단속, 대국민 홍보 등 추진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환경청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비상저감조치 모의 훈련 등을 우선 실시하였고, 12월부터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국민 참여 독려 홍보 2개 분야로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이동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군산·익산 산단 등 배출원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저감하는 사업장도 확대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소는 기존 사업장과 더불어 의무 사업장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실태 점검, 취약계층 및 인구 밀집지역 주변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실태점검, 드론을 활용하여 농지·민가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을 강

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및 민간 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실태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등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계절관리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추진한다.

라디오, 인터넷, 신문,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소각 금지,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강수량이 적고 일사적 추위 증가로 난방 사용량이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기업사랑 도민회, 중소기업 지원 위한 생활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회장 윤방섭)가 회원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생활형 공동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사랑 도민회는 지난달 28일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과 소비자 상호 윈-윈하는 생활형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300여 기업들의 가족과 임직원

들이 생활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업은 매출처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일심한 방병원, 수병원, 이종요양병원, 배리관, 상관리조트, 감초가, 삼보죽점, 마르페플래티늄 요양원 등이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 금융, 호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방섭 회장은 "지역상품 애용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역 기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면 기업과 도민이 상생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 9월 말 기금 운용 수익률 9.18% 기록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의 9.18%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1~9월 수익률(금액가중 기준) 9.18%, 운용수익금 97조2,434억원을 기록(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675조2,000억원의 수익금이 누적되고, 총 1,146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자산별 잠정수익률은 해외주식 21.35%, 해외채권 6.97%, 대체투자 5.05%, 국내채권 4.09%, 국내주식 0.46%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해외주식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채권가격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9.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의 3분기 말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 기간의 이자 및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